

‘오징어게임’ 비영어권 작품 수상 새 역사 쓸까

인종차별 논란 HFPA 주관하는 상 후보 발표되자 방송사 카메라 철수 제작진·배우 시상식 참여할지 주목



‘골든글로브 웹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이 작품에 출연한 오영수와 이정재(왼쪽부터)가 미국 영화·TV소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의 후보로 지명됐다. 내년 1월9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오징어게임’은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참가자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목숨을 내건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놀이였다. 이제 스타들은 실제 혈투를 벌이게 됐다.”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의 기사 가운데 일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골든글로브 ‘TV시리즈·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른 뒤 극중 상황에 비유해 내놓은 보도이다. 이날 주연 이정재와 ‘간부’가 된 오영수도 각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됐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이 한국드라마와 배우를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려놓으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미나리’의 외국어영화상 후보 지명 이후 골든글로브 측에 쏟아진 비판의 여파 때문이다.

● 후보 발표? ‘할리우드의 집단적 침묵’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주관하는 영화와 TV프로그램 관련 상이다. 영화의 경우 수상작을 통해 아카데미상의 향방을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올해 한국어 대사가 절반을 넘는다 는 이유로 미국영화인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지명하면서 인종차별 등 논란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LA타임스 등이 회원 급전 지급, 회원 86명 중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점, 유력 배급사 협찬 해외여행, 배우 성희롱 등 갖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할리우드의 골든글로브 참여 거부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HFPA는 흑인을 회원에 포함시키며 다양성 확보 노력을 펼치는 등 자체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골든글로브 후보 발표를 바라보는 현지 시

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매년 시상식을 중계해온 NBC는 내년 1월10일 펼쳐질 무대를 거부했고, 할리우드 스타들의 홍보 에이전트들은 HFPA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며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후보 공식 발표 순간을 전후 해 현지 방송사들은 카메라를 철수했다. AP통신과 LA타임스 등 언론들은 “집단적 침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오징어게임’, 새로운 역사 쓰나?

‘오징어게임’을 미국에서도 공개해 골든글로브 후보 및 수상 자격을 얻은 넷플릭스도 올해 5월 이미 ‘침묵’ 행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눈길을 끈다. 당시 넷플릭스의 테드 사란도스 CEO는 “(HFPA가) 더 의미 있게 변화할 때까지 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워너브러더스, HBO 등 현지 유력 스튜디오들도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최대 흥행작인 ‘오징어게임’이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면서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5월 “테드 사란도스의 선언이 HFPA가 변화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 직전 나왔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넷플릭스가 어떤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 제작진과 배우들의 시상식 참석 여부부터 관심을 모은다. 이날 넷플릭스 측은 “골든글로브에 ‘오징어게임’을 공식 출품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 밖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화 ‘기생충’이 이미 지난해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던 뒤 올해 한국어 대사와 한국적 정서로 같은 상을 받은 ‘미나리’는 골든글로브·HFPA 개혁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오징어게임’은 “골든글로브와 에미상에서 주요 부문 후보가 된 적 없다”는 “비영어권 작품”으로서 새로운 ‘역사’(버라이어티)를 쓸까.

윤여주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NCT 정규 3집 선주문량 170만장 기록



NCT

그룹 NCT가 정규 3집의 선주문량을 170만장 기록했다. 1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NCT 정규 3집 ‘유니버스’(Universe)가 선주문량 170만2142장으로, 지난해 2집에 이어 그룹을 또 한번 밀리언셀러에 올려놓았다.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뷰티풀(Beautiful)’과 ‘유니버스’를 비롯해 NCT U, NCT 127, NCT 드림, 웨이션비 등 각 팀의 노래까지 13곡이 수록됐다. NCT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컴백 기념 생방송 ‘NCT 유니버스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열고 팬들에게 이번 음반을 직접 소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2 제작 확정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시즌2로 돌아온다. 넷플릭스는 14일 “D.P.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즌2도 한준희 감독이 연출하고 김보통 작가와 각본을 함께 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D.P.’는 탈영병을 추적해 체포하는 육군 헌병 군탈체포포조(D.P.)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로, 시즌1을 통해 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해 화제를 모았다. 정해인과 구교환, 김성균, 손석규, 신승호, 조현철 등이 출연했다. 최근 ‘2021 뉴욕타임스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톱10’에 선정됐다.

브레이브걸스, NFT로 팬들과 만나다



브레이브걸스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NFT(대체불가능토큰)로 팬들을 만났다. 14일 이들의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M. BRAVE GIRLS(브레이브걸스)’ NFT 배너를 공개하고 관련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이를 17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업비트를 통해 판매한다. 지능형 기계인간인 ‘M 브레이브걸스’의 긴 여정 이야기를 담았다. NFT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원본 인증서’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트와이스의 JYP엔터테인먼트 등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생활 논란 김선호 ‘올해를 빛낸 탤런트’ 1위



김선호

최고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휩싸였던 김선호가 ‘올해를 빛낸 탤런트’로 꼽혔다. 한국갤럽이 11월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올해 가장 활약한 탤런트’를(두 명까지) 물은 결과,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주연 김선호와 신민아가 각각 7.8%와 7.3%의 지지를 얻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갯마을 차차차’는 2004년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을 리메이크했다. 이정재(7.3%), 전지현(5.5%), 송혜교(5.2%)가 뒤를 이었다.

배우 신현빈 코로나19 재검사 확진 판정

배우 신현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유본컴퍼니는 14일 “신현빈이 13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 통보를 받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면서 “보류 및 경계 판정 이후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현빈은 9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스के줄을 소화해왔다. 한편 최근 유재석과 유희열이 확진 판정된 가운데 이들의 소속사 안테나의 연예인과 스태프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호불호 나누는 래퍼” 편견 지운게 가장 뿌듯하죠”

쇼미더머니10 우승자 조광일

“국어사전 소리내 읽으며 랩 연습 타 장르 아티스트와 협업이 목표”

엠넷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0’의 우승자 조광일(25)은 요즘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3일 종영했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프로그램의 열기 덕분이다. 비오, 쿤타 등 동료들과 11·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쇼미더머니10’ 콘서트를 펼친 데 이어 25일 부산으로 향한다. ‘호우주의’ ‘가리온’ 등 프로그램에서 부른 노래도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여름 예선에 참가할 때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상이다.

● “편견, 다 깨서 좋아요.”

2012년부터 10년째 이어온 ‘쇼미더머니’ 시리즈의 열 번째 우승자로 더욱 화제를 모은 그는 “그저 때가 맞아서일 뿐”이라며 애써 자신을 다잡고 있다. 프로그

램으로 인연을 맺은 래퍼 개코와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덕분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과분하죠. 이전 시즌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저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노력과 진심으로 임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잘 맞고 운이 따라줘 우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9년 ‘그로우 백’으로 데뷔해 빠르게 유희하는 ‘속사포’ 랩을 구사해온 그는 “나에 대한 각종 편견을 지운 게 가장 뿌듯하다”고 돌아섰다.

“그동안 ‘호불호 나누는 래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줄 거란 믿음으로 버텼죠.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부른 ‘호우주의’의 ‘여대 너무 치열했던 내 호불호/전부 바꿔놔야겠어/이 랩으로’라는 노랫말처럼 말이지요.”

●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법!”

17세 무렵 무작정 랩을 시작한 이후 “즐거워 노력이 따라붙는다”는 신조를

지켜왔다. “두꺼운 국어사전을 포박포박 소리 내어 전부 읽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다행히도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힘든 줄도 모르게 지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음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늘 즐거워 막막한 상황도 유연하게 잘 넘길 것 같아요. 랩으로 표현이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해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뭘 해도 응원하는 팬들”이 생겨 행복하다. 공연과 음악 작업으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유일한 취미는 “당구와 과자 먹기”.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기부하기로 했다. 거친 매력을 뽐내는 무대 위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개코도 인정하듯 ‘반전 매력’의 소유자답다. 이제 “색다른 도전”도 꿈꾸고 있다.

“힙합이 아닌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작업도 펼치고 싶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쇼미더머니 10’ 우승자 조광일. 사진제공 | 엠넷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

‘웃기려고 작성한’ 이서진·정지훈·차인표

이서진 ‘내과 박원장’ 민머리 변신 정지훈·차인표도 코믹 연기 예고

이서진, 정지훈, 차인표가 내년 색다른 도전을 펼친다. 최근 안방극장에서 인기를 높여가는 코믹 장르를 통해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기세다.

이서진은 내년 1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으로 내놓는 오리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에서 민머리 분장

을 감행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작품 포스터는 극중 탈모 고민에 시달리는 내과 개업의로 변신해 정수리 행한 이서진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다. 온라인 상에서 단박에 화제를 모으자 연출자 서준범 PD는 “합성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서진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해준 덕분에”이라고 밝혔다.

정지훈은 내년 1월3일부터 방송하는 tvN ‘고스트 닥터’로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실력 좋은 의사 역을 연기하는 그는 사병

감 없는 의사 김범과 영혼과 몸을 공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일상을 그린다. 2018년 JTBC ‘스캐치’, 2019년 MBC ‘웰컴2라이프’ 등을 통해 선보인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와는 달리 재기발랄한 매력 이 돋보이는 역할이다.

차인표의 새 무대는 시트콤이다. 내년 OTT 플랫폼으로 공개할 ‘청와대 사람들’의 촬영을 최근 마쳤다. MBC ‘왕초’와 ‘하얀 거탑’, SBS ‘대물’ 등에서 내보인 강렬한 눈빛을 잠시 접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에 시달리는 와중에 갱년기가 찾아와 특이한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연기한다. 유지혜 기자